

S1

## 해양생명공학 기술의 응용과 분자육종

정 재 훈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 연구단장)

지식정보화, 세계화, 해양화의 글로벌화로 어울려진 청색혁명의 21세기에 해양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문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다음 세대에 계승할 삶의 터전이자 프로티어 영역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무한한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21세기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시대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중국, 호주는 해양바이오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찍이 선진해양국은 해양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해양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육상자원의 고갈에 따라 무궁한 해양자원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다양성 보전 등에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취약한 국내해양수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가 협력체를 구성하여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와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전통적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사업으로의 개편을 통한 201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국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현재 선진국의 43% 수준인 해양과학 기술 수준을 2010년에는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2030년에는 10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을 통해서 수산물 전체 생산량 중 양식산업의 점유비율을 현재 27%에서 2030년 45%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해양생명공학을 이용한 신물질을 개발하여 2010년 이후 연간 2조원 이상의 신해양산업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